

필막취재

| 글로벌 설비 전문업체로 제2의 도약 준비

한테크(주), 중국 천진 공장 설립 및 본사 사옥 마련

○○○ 취재 | 박지연 기자 |

렌즈 조립 공정용 설비 전문업체인 한테크(주)(대표 · 문호균, www.gohantech.co.kr)가 지난해 11월 중국 천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최근에는 사세확장을 통해 경남 창원에 본사 사옥을 마련하고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설립초부터 렌즈 조립 공정용 설비인 열 코킹기, 흑칠기, 해상력 검사기 등을 선보인 한테크는 카메라 및 폰카메라 등 소형 정밀 제품용 치공구와 계측기의 설계 및 제작에도 주력, 현재 삼성 케녹스 카메라 신기종 설비 개발 지정업체이기도 하다.

한테크 문호균 사장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카메라폰을 포함한 IT모듈쪽의 물량이 회사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는데 작년에는 오히려 삼성 카메라 물량이 90%를 차지했을 정도로 최근 카메라 물량이 대폭 늘었다”며 “중국 천진 법인 설립을 통해 삼성카메라 물량의 신속한 지원과 더불어 전자협력업체 및 주변 판로 개척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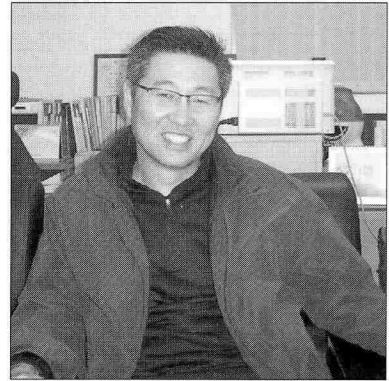
현재 중국공장에는 5년전부터 삼성카메라 중국 생산공장에 기술지원을 위해 나가 있는 직원을 포함하여 8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아파트형 공장 113평에 사무실과 조립실 등을 갖추고 있다.

경남 창원 본사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매입한 한테크는 그동안 마산에 있던 조립실까지 합쳐 1층은 조립실, 4층은 사무실과 설계실로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장유에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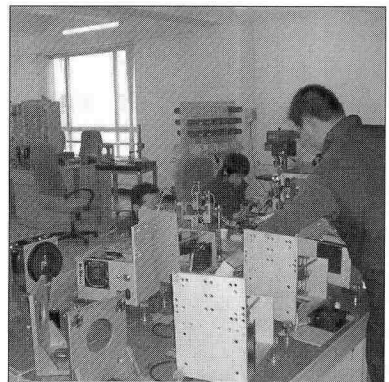
한테크는 IT모듈장비의 수요증가에 따라 2005년에 2004년의 2배 이상 성장(매출 17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06년에는 카메라 수요증가로 1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에는 25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테크는 2005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06년에는 이노비즈 기업 인증과 경남 창원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올 상반기중에 연구개발 전담팀을 신설하며 설비 제작업체로서의 면모를 한층 갖춰 나갈 계획이다.



문호균 대표



중국 천진 공장의 조립실 전경



한테크가 입주해 있는 중국 천진 아파트형공장 전경